

ISSN 1229 - 6198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VOL. 8. NO.1 2005

大韓醫療氣功學會

激勵辭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출2000억 달러의 달성이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의 기록을 달성하고도 극심한 내수불안에 의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회원들 무던히도 힘들었을 지난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한의계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얼이 살아있습니다.



大韓韓醫師協會長

안재구

50여 년간 한의계의 숙원사업이던 회관건립을 비롯해, 한의약육성법 후속법령, 약대 6년제 문제, 한의약청 설치 등의 큰 과제를 힘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을 방문, 북측 고려의학협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발전현황 및 향후 지속적인 교류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한의학연구원이 완공되어 향후 국내 한의학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선봉 전초기지로서 R&D(연구개발)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의계는 낙관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는 분명히 힘든 한해였습니다. 한의약육성법 후속법령 마련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관련 관계단체 및 전문가회의'에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사회와 약사회를 참여시켜 직능 단체간 갈등을 부추겨 육성법 제정 의미를 훼손시켰고, 한의약의 체계적 육성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것은 제외시키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한 추적 60분의 한약재 유통 체계 문제에 대한 보도, YMCA의 음해성 보도 등으로 인해 가뜰이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약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의계에는 2005년의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올 초면 한의계의 숙원사업인 대한한 의사협회 회관 건립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최첨단 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우리의 한의약산업이 우위를 점하여 세계속의 한의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KOMSTA)이 문화방송(MBC)과 신용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2004 MBC 사회봉사 대상’ 가운데 영예의 대상(大賞)을 수상하여 국가브랜드 구축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듯이 2005년에도 현재 동남아시아에 발생한 해일피해지역 등 세계에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참여하여 한의학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은 한의사에 대한 호감도가 70%로 양방의사 30%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의계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의학에 대한 외부도전을 또 다른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일 뿐이라 인식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의학육성법시행령의 조속한 마무리와, 한약제제의 별도분류 관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한의약 전담국 설치 등 한의계 현안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大韓醫療氣功學會의 회원 여러분들이 大韓醫療氣功學會誌 第8卷 1號를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大韓醫療氣功學會 여러분들이 醫療氣功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의학이 우리 韓醫學이 될 수 있도록 主導的이고 核心的인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서 귀중한 玉考를 내어주신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員들께 勞苦를 致賀하면서 심심한 感謝의 뜻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된 새로운 정보와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라며 學會의 무궁한 발전을 祈願하며 激勵辭에 가름합니다.

2005. 1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재규

激勵辭

한의학이 세계속의 중심의학으로...

안녕하십니까? 大韓醫療氣功學會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大韓韓醫學會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도 정보화사업에서 분과학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분과학회 전산화 구축 지원, 한방관련 컨텐츠 제공 업체와의 제휴, 大韓韓醫學會 홈페이지 호스팅 및 유지보수, 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학술교류지원 등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한의학 지식 DB를 구축할 수 있을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大韓韓醫學會長

박동석

2005년 을유년 새해는 大韓韓醫學會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독립된 지 6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大韓韓醫學會는 한의학이 세계속의 중심의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하듯이 한국적인 것을 가장 현대화하여 세계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예방의학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치료의학 즉 증거중심의학(EBM, Evidence-based Medicine)으로서 당당히 서양의학과 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의 학술적인 연구의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의계에서도 한의약시장의 국제화에 맞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하고, 병원경영도 개인에 의한 운영보다 시스템에 의한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학문적인 성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대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한의학의 우수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세계 속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회의 주요한 기본 연구 중에서도 표준화된 한의용어 표준화사업 진행이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책 하에 용어의 표준화, 의료행위를 표준화, 한의질병표준화안을 마련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大韓醫療氣功學會 회원 여러분들이 大韓醫療氣功學會誌 제8권 1호를 발간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의료기공 분야에 대해 한의학의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大韓韓醫學會는 귀 학회의 발전이 곧 학회의 발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員들의 勞苦를 致賀하면서 學會의 무궁한 발전을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 동 석

發 刊 辭

양생법의 이치를 터득해 자연의 변화에 대처

2004년 갑신년 말에 발생한 이번 자연재해인 쓰나미는 전 세계인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연의 재앙을 경고 했었고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닌 것임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에 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大韓醫療氣功學會長

박재수

한의학은 기를 조절하는 조기의학입니다.

인체는 자연의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연의 기의 변화에 사람의 경락의 기는 아주 크게 변화하여 많은 질병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심할수록 많은 새로운 질병들이 탄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생수련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연 변화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한의학은 대자연의 이치를 알고 대처하는 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운기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도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양생법의 이치를 터득하면 자연의 변화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기공수련은 급변하는 운기의 변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번 논문집은 한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연구들이라 여겨집니다.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한의학의 발전이야말로 자연의 재앙들을 예방하고 재앙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大韓醫療氣功學會 회원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인 이번 학회지 발간은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회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 한의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많은 난치병과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05. 1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재수

目 次

■ 激勵辭

- 위기를 기회로 삼아... :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재규
한의학이 세계속의 중심의학으로... :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동석

■ 發刊辭

- 양생법의 이치를 터득해 자연의 변화에 대처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재수

■ 公법 소개 論文

- 無心氣功의 導引法 및 일반공법 소개
유광열 · 이재흥 · 나삼식 · 박종웅 1

■ 文獻 論文

- 靈樞 素問에 나타난 刺絡에 대한 문헌적 고찰
장명준 · 이상용 53
근막동통증후군의 한의학적 활용에 관한 고찰 -요통을 중심으로
강한주 · 박정은 82

■ 實驗 論文

- 都市地域 老人들의 健康實態와 養生 水準과의 關聯性 - 全羅北道 一部 都市地域을 中心으로 -
최은경 · 권소희 · 김애정 · 박준상 · 박재수 · 이기남 96
일부 노인인 건강인식에 따른 양생(養生)수준 - 全北地域을 中心으로 -
김정환 · 권소희 · 김애정 · 서명효 · 박재수 · 이기남 115

[부록]

- 기공요법 임상 가이드 128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則 全文 286
■ 大韓醫療氣功學會 논문 규정 293
■ 大韓醫療氣功學會 기구조직 및 임원 304